

지역 매 아 리

교월동, 독거어르신 보양음식 대접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에서는 21일 오전 11시 30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여름나기 보양음식(한방 유황오리탕)을 대접해드리는 '내 생애 최고의 날' Happy-Day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4회째 실시되는 본 사업은 법정동별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3명씩 추천받아 5개 마을로 나눠서 월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무더운 여름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양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다.

이날 행사는 사업취지 안내와 시낭송, 선물전달식, 포토타임, 식사 순으로 진행되며, 협의체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무더위를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방오리백숙과 모시메리를 준비하고, 복지통장과 기동대원은 모든 어르신들의 왕복 인승을 책임지는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신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소외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고, 극진한 대접으로 최고의 보양을 해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연말까지 교월동 관내 15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여 위로와 행복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을 돕는 아너소사이어티 최정복 님의 지정기탁금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고추 바이러스 방제 당부

완주군이 고추 재배농가의 바이러스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고추 재배농가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관찰과 방제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바이러스 발병은 최근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더 확산되는 추세로 따뜻한 겨울은 매개충의 월동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재배기간 중 고온은 해충의 세대가 짧아져 결과적으로 매개충 밀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등 6종이 있으며 주로 진딧물, 총채벌레에 의해 전염 확산된다.

최근 고추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총채벌레에 의해 전염되는데 꽃 아래에 흰 종이를 놓고 털었을 때 기어 다니는 작은 벌레로 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 방제약은 현재까지 개발된 것이 없어 매개하는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비확보 본격 행보

박준배 당선인, 기획재정부 방문 지원 건의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당선인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방문하여 경제예산심의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시장현안 파악과 공약사항 정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중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면담에서 박 당선인은 노후·위험 교량인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과 장애인들의 교육복지 개선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

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에서 개발·생산된 종자의 상품성 향상을 통해 국내 중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박준배 당선인은 "김제의 경제도약을 위해 국가예산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며 "앞으로 지난 35년간 일 자리와 기업유치 그리고 새만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SNS 서포터즈 '지평이' 모집

온라인 홍보대사 20명, 27일까지 접수

김제시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뛰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SNS 서포터즈 '지평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SNS 서포터즈 '지평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축제를 알리는 온라인 홍보대사로 선발인원은 20명이며 오는 6월 27일까지 모집 후 7월초 확정한다.

지평이로 선발되면 8월 중순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며 축제 종료시까지 SNS를 통하여 지평선 축제를 홍보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축제 종료후에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 인정과 함께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평소 SNS를 즐기고 지평선축제에 대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평선축제홈페이지(<http://festival.gimje.go.kr>)와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gimjehorizon>)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

여 이메일(divis8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양운영 문화홍보축제실장은 "SNS가 범사회적 소통방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소수정예로 구성된 SNS 홍보단을 통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지평이를 통해 참신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축제 사전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기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에서 개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 하절기 방역 실시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빈틈없는 하절기 방역을 추진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백구면은 6월부터 하절기 방역을 위하여 40개 마을 이장단으로 구성된 자율방역단과 대형 연막기 1대를 동원하여 매주 마을을 순회하며 인



구말집지역, 가족사육장, 하수구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웅덩이, 풀숲 등 해충 서식지를 우선 제거하여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에 위해해충(모기유충, 성충 등) 및 진드기 발생이 많아져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90여일간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모기유충, 성충 등 위해해충의 서식지를 발견하는 주민은 면사무소로 신고해줄 것과 도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후 구토와 발열,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면사무소 및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향후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기개발 돕는다

완주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완주군은 완주군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부터 시작된 가운데 최근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사업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교류와 더불어 추가 신인 청소년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

부와 완주군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저소득층과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다자녀·맞벌이 가정의 중학교 1~2학년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포츠, 현대무용, 원예 등의 전문 체험을 비롯해 영어, 수학, 역사의 학습지원, 자기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완주군은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님의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장애인희망콜로 불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한다.

'교통복지' 완주군, 장애인희망콜 운영 확대

완주군이 장애인희망콜로 불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한다.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어 장애인희망콜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그동안 도내 각 시군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가 달라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이용자들을 위해 요금을 인하해

요금체계를 일원화 한다. 심야 및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았던 완주군 장애인희망콜이 24시간 연중 운영하게 됐다.

장애인희망콜 운영 확대에 따라 희망지는 신청을 통해 심사를 통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심야 및 휴일에도 장애인 희망콜을 이용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